

주간기도정보

2026. 5. 2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10년 넘게 생사도 모른다”... 北 억류 선교사 가족들 송환 호소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 촉구 국제회의, 국제사회에 관심 요청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의 가족들이 정부와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생사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구명 방안과 국제사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 억류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억류자 가족들은 나이 들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는 억류 선교사 송환을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세 분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8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가 구금 당시의 고통과 후유증을 증언했다. 김 선교사는 2017년 5월 평양에서 중국 단둥으로 이동하려다 체포돼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혼자 살아 나왔다는 미안함에 아직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며 “독방 생활의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고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억류 중인 세 선교사의 석방을 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제 인권기구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의장은 “강제실종은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포를 주는 문제”라며 “여러 차례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석방을 촉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자유를 빼앗긴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며 “북한에 이들의 석방과 함께 피해 회복, 진상 조사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김원호·박정호·함진우 씨 등 탈북민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알려졌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하나님,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되어 '강제실종'된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호소를 들으며 먼저 이 일에 무관심했던 우리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전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북한 정권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풀려나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상한 가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갇힌 자와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모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완전한 자유와 놓임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북한 “기독교 거의 소멸” 주장… 실제로는 ‘침묵 속 생존’

정치범수용소·연좌제 공포 속에서도 이어지는 은밀한 복음 전파



북한 정권이 지하 기독교 활동에 대한 ‘거의 완전한 소탕’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여전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최근 “조직적인 지하예배와 비밀 기도모임이 거의 사라졌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이후 종교 단속과 사상 검열을 대폭 강화했으며, 기독교 활동을 ‘반국가 범죄’로 규정해 정치범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과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독교를 접한 뒤 귀국해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체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는 성경 소지나 비밀예배 참석, 심지어 신앙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평생 수감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지며,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기도 한다. 데일리NK 소식통은 “보위성 내부에서는 사상교화보다 색출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적발자는 재교육 없이 곧바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탄압 속에서 북한 지하교회는 공개적 공동체보다 개인적이고 은밀한 신앙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탈북민 조사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실제 기독교인이나 성경, 십자가를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 존재 자체가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 관련 체포 사실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는 현재 북한 내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7만 명이 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체는 북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위협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북한 사역 코디네이터 사이먼 리는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단순한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다”며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예배하는 것은 곧 반역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체계적 박해가 김일성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북한 성도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탈북민들과 지하교회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탈북민 김종직 씨는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 한 노인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 언제나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전 세계 교회의 기도를 통해 북한의 문도 언젠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북한 내부 성도가 비밀리에 전한 메시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으며, 복음 전파를 가장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증언했다(출처: 미국오픈도어 종합).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사도행전 9:18,22,3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하나님, 기독교가 독재 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종교 단속으로 지하교회가 거의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님이 북한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비밀리에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노동수용소에 갇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북한 교회의 눈을 여사 암울한 현실이 아닌 주께서 다시 오실 광명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뛰어 넘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소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예수교회 된 북한의 교회가 주의 보호하심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전진하여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초등 학폭 2년 새 2.5배 급증… 신체폭력도 6년 만 최고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 발표… 도움 요청 줄고 방관 문화 심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폭력 비중은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사이버폭력 역시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영리단체 푸른나무재단이 19일 발표한 ‘202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8,4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6.2%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율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2023년(4.9%) 대비 약 2.5배 급증한 수치다. 가해 경험(5.2%)과 목격 경험(17.8%)

모두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23.8%)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7.9%)과 사이버폭력(14.5%)이 뒤를 이었다. 신체폭력 비율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재단은 초등학생들이 몸놀이와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 경험률은 2024년 16.2%에서 2025년 39.9%로 급증했으며, 게임 내 사이버 갈취·강요·성폭력 피해가 집중됐다. 온라인게임 피해 학생의 온·오프라인 중복 피해율은 95.7%로 전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재단은 온라인게임 공간이 단순한 놀이 영역을 넘어 현실 인간관계와 연결된 복합 폭력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과장은 “최근에는 실시간 음성대화 기능이 있는 온라인게임 안에서 갈등과 욕설, 성적 괴롭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과 승패 구조 속에서 욕설과 공격적 표현이 장난이나 감정 표현 정도로 축소되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은 줄어든 반면 방관 문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목격 후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이 54.6%였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방관했다는 비율은 2023년 12.6%에서 2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복 피해와 반복 가해는 각각 54.4%, 35.9%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약 1.4배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이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 후 가장 필요한 도움 역시 '가해 학생의 사과'(70.8%)가 1위였다. 가해 학생들 또한 폭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서'를 꼽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역시 과제로 지적됐다. 푸른나무재단은 정보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행동 역량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확대, 방관 문화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시편 119:132-133)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디모데후서 2:25-26)

하나님, 학교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애통함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폭력으로 고통 당하는 아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친구들을 괴롭히며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아이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부모세대가 사랑으로 기도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병든 옛사람과 그 모든 죄에서 우릴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음세대를 오직 말씀에 굳게 세우사 어떤 죄악도 이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